

월드컵서 잉글랜드 골 넣을 때마다 나무 500그루 심을 것

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

사회공헌활동 잉글랜드 '영원한 캡틴' 리버풀 FC의 심장, 지도자로 변신 팬들 사랑 돌려주는 건 당연한 일

삶의 중요한 '골'은 지구 지키는 것 BTS 등 11명 '팀 센추리' 주장 맡아

카타르 사상 첫 '탄소중립 월드컵' 태양열 조명, 친환경 유니폼 활용을

축구 중추국 잉글랜드의 영원한 캡틴, 영국 프리미어리그(PL) 역대 최고 미드필더 중 한 명, 세계적 축구 클럽인 리버풀 FC의 심장... 축구선수 시절의 스티븐 제라드(42·사진)를 가리키는 화려한 수식이다. 1980년 잉글랜드 리버풀에서 태어난 제라드는 98년 리버풀 FC에 입단해 2015년까지 이 팀에서만 504경기에 출전, 120골을 넣었다. '2004-05 시즌'에는 리버풀 FC가 모든 축구인들의 꿈의 무대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활약하면서 A매치 114경기에서 21골을 넣었다. 2016년 은퇴해 축구지도자로 변신한 그의 커리어는 현재진행형이다. 중앙SUNDAY는 한국시간으로 21일 개막하는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을 맞아 현대자동차의 '세기의 골 캠페인' 엠버서더로 활약 중인 제라드를 단독으로 서면 인터뷰했다.

아동빈곤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사회활동

-현역 시절 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골은.
"단연 AC 밀란을 상대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넣은 골이다. 가장 맛있는 골은 아니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골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전반전까지 0대 3으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후반 9분 내가 헤딩한 공이 상대편 골망을 흔들며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났다. 이후 우리 팀은 두 골을 더 넣어 동점을 만들었고, 승부차기까지 간 끝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거머쥐었다."

제라드가 말한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사상 최고 명승부 중 하나로 회자되는 '2004-05 시즌' 결승전 경기로, 터키 이스탄불에서 치러진 이 경기에서 리버풀 FC는 경기력에서 우위를 보인 AC 밀란을 상대로 극적으로 승리해 '이스탄불의 기적'이라 불린다.

-축구지도자로 변신하시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다.

"인생 대부분을 리버풀에서 살며 주변의 청년과 아동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 '스티븐 제라드 재단'을 설립해 가정파괴나 경제적 불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아동을 돕기 시작한 것도 그래서다. 아동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풋볼 포 체인지'(Football For Change), 사이버불링(온라인 집단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호프 유나이티드'(Hope United), 인종차별에 맞서는 '이너프 바이 PFA'(Enough

by PFA)와 같은 프로젝트를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팬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차그룹 '세기의 골' 캠페인 엠버서더(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다.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다.

"축구선수로서 항상 다음 골을 꿈꿔왔다. 팀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골이 있다면 바로 지구를 지키는 것이다. 이는 한 사람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가능하다. 특히 월드컵은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벤트로, 월드컵을 통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든다'는 골(목표) 달성을 위해 동참을 독려하고자 참여했다. 개인적으로 내 자녀의 아버지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세상을 보호하는 것이 인생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정에 참여해 기쁘다."

-캠페인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세기의 골 캠페인의 엠버서더인 '팀 센추리'(Team Century)의 주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박지성, 로렌초 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11명으로 구성된 엠버서더의 주장으로서 사람들이 매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고 싶다. 나의 팬 중 한 명이라도 나로 인해 이 캠페인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할 것 같다."

-이번 캠페인에는 '공약 이벤트'가 있다. 잉글랜드 대표팀 관련 공약도 있다.

"공약 이벤트는 월드컵 본선 진출 32개국 중 응원하는 국가가 득점할 경우 실천할 '친환경 공약'을 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에 맞춰 나는 잉글랜드 대표팀이 골을 넣을 때마다 현대차와 함께 500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다. 더 많은 나무를 심어 지구를 지킬 수 있도록 잉글랜드 대표팀이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전 세계, 모든 분야가 환경 보호를 위해 나섰다. 축구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나.

"리버풀 FC의 경우 유엔의 스포츠 기후 행동 협정(Sports for Climate Action)에 서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영국 정부 입법과 맞물려 탄소배출량 제로(absolutely zero carbon emissions)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클럽 운영에 있어 탄소중립을 이미 달성했다. 전기가 가스 공급에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 북서부 지역 나무 심기를 통해서 탄소배출량을 상쇄했다. 이번 아시안 유니폼도 100% 재활용 폴리에스터 원단으로 제작한다."

작은 실천 더할 때 최고의 골 기록할 것

-이번 월드컵에는 친환경 유니폼과 태양열 조명 등이 도입된다. 잉글랜드에도 도입하면 좋은 만한 사례가 있다.

"카타르 월드컵이 첫 번째 탄소중립 월드컵인 만큼 잉글랜드 클럽들이 참고할 만한 요소가 많다. 친환경 공공 교통수단, 에너지 및 용수 효율을 강조한 경기장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태양열 조명, 재활용 소재 사용 등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요소라고 본다. 특히 친환경 차량 도입은 여러 클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현대차의 후원으로 전체 승용·레저용 운영 차량 중 약 50%가 친환경차로 구성된다. 전기버스 10대도 제공된다. 매 시즌 PL의 원정경기를 모두 소화하려면 비행기나 차량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다. 이동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차량 도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축구계가 친환경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BBC 스포츠 설문조사 결과 '본인이 응원하는 축구 클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다'라

는 질문에 58%가 강력하게 동의했다. 전 세계 클럽이 앞장서서 축구로 하나 된 사람들에게 친환경을 위한 행동에 함께 동참할 것을 알리고, 실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몇 가지 작은 행동들로 미래를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 난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의 수많은 작은 실천이 더해졌을 때 최고의 골(목표)을 기록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제2의 제라드가 되기를 꿈꾸는 한국 청소년들에게 조언한다면.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선 큰 희생이 필요하다. 때로는 듣기 싫더라도 사람들의 말을 수용해야 하고, 친구들도 포기해야 한다. 자신이 정한 목표를 위해 집중해야만 한다. 다만 불행하게도 누구나 운이 좋은 건 아니다.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축구에 대한 열정을 끊임없이 쏟아 부는 한편 다른 교육도 꾸준히 받았으면 좋겠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스티븐 제라드(Steven Gerrard)

| | |
|-------------|---|
| 출생 | 1980년, 잉글랜드 |
| 직업 | 축구선수(은퇴), 축구지도자 |
| 신체 | 183cm, 83kg |
| 선수경력 | • 1998-2015년 리버풀 FC • 2015-2016년 LA 갤럭시 ※ 2000-2014년 잉글랜드 국가대표 |
| 감독경력 | • 2017-2018년 리버풀 FC U-18 • 2018-2021년 레인저스 FC • 2021-2022년 아스톤 빌라 FC |
| 주요수상 | • 2005년 발롱도르 3위 • 2004-05 UEFA 올해의 클럽 축구선수 • 2005-06 PFA 올해의 선수 • 2008-09 FWA 올해의 선수 • 2013-14 프리미어리그 도움왕 • 2020-21 PFA 스코틀랜드 올해의 감독 |



스티븐 제라드는 아동빈곤 문제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사진 스티븐 제라드〉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의 '친환경 넘버'

- 11명** 첫 탄소중립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는 '팀 센추리' 멤버 (스티븐 제라드, 박지성, BTS 등. BTS는 1명으로 간주)
- 236대** 대회 공식 후원사인 현대차가 제공하는 친환경차(아래 왼쪽 사진) (월드컵 사상 최초로 친환경차를 대회 공식 운영 차량으로 채택)
- 500그루**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이 득점하는 한 골당 심을 나무
- 974개** 경기장 중 하나인 '974 스타디움' 건설에 투입된 재활용 컨테이너 (대회 후 해체해 저개발국에 기증 예정·아래 오른쪽 사진)



자료:현대차·외신 종합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